

# 당 쇄신책 꺼내든 文, 단일화 주도권 될까

안 후보 정치쇄신 이슈 적극대응

단일화 협상 분위기 띄우기 포석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6일 당 쇄신책을 꺼내들며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안 후보가 선점해왔던 정치쇄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단일화 논의에서 밀리지 않고 협상의 연결 고리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가 이날 밝힌 당 쇄신책은 중앙당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과 당원 구조 개편이 골자다.

안 후보가 제시했던 중앙당 축소 및 폐지 방안에 어느 정도 화답하면서 당 쇄신 방안을 미리 제시, 후보 단일화 협상 분위기 제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 후보 측은 '단일화 회동' 성사와 관련, 안 후보의 결단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 후보 단일화 회동을 앞두고 인물 대결 구도가 본격화된다면 그래도 안 후보에 비해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실 등이 틀어놓을 수 있도록 보다 대승적인 차

원에서 협상에 대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타 후보 진영의 결선투표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듯 이번 협상에서도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진정성과 안정감,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 단일화 회동을 제안한 안 후보의 결단이 여론조사 흐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문 후보의 진정성이 보여진다면 오히려 후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후보는 전날 밤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간 관계자들에게 "최대한 요구사항은 다 들어주라"며 "안 후보 측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고집하지는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후보 단일화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인물 대결 구도가 본격화된다면 그래도 안 후보에 비해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실 등이 틀어놓을 수 있도록 보다 대승적인 차

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후보 선대위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에 협상 과정에서의 안 후보의 '깜짝 제안' 등 돌발 상황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무래도 정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이 빠른 안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뜻밖의 카드를 들고 선제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단일화 공세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던 안 후보가 광주 방문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단일화 회동을 제안, 문 후보 선대위는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의 포인트는 '진정성'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감동을 견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진정한 정치쇄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가 답이다!

일시/ 2012년 11월 6일(화) 오전 7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민주당의 쇄신을 바라는 의원 일동



민주통합당 이종걸, 문병호, 노은래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쇄신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축소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도부 퇴진' 文 결단 임박

당내 의견 수렴후 시기·수위 조절 전망

'이-박'(이해찬-박지원) 퇴진론으로 대변되는 온·오프라인에 대한 민주통합당 문제인 대선 후보의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이해찬 대표와 회동을 가진데 이어 쇄신파 등 다양한 그룹과 접촉을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5일 저녁에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선대위 한 인사는 6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너무 늦출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내일 사이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문 후보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해야 당내와 국민이 동시에 납득할 수 있을지 충정여린 고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경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이 제대로 인정 안되고 선거에 걸림돌이 된다면 뭔가 가시적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결론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며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선 문 후보가 일단 이날 저녁 안 후보와의 회동을 마무리하는데 진력한 뒤 금방 고민의 과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정치위가 두 사람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형식은 피하고 '퇴각' 시기와 수위에 대한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朴 정치쇄신안 野 단일화 대응카드 될까

"차떼기당·공천비리당 오명 씻자" 정당개혁 첫 과제로

검찰·국세청 빼져 '기득권 내려놓기 와는 거리' 지적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6일 발표한 정치쇄신안은 차떼기당·공천비리당과 같은 오명을 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당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억압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은 기현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내보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대선용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권 후 논의라는 원칙을 밝혔다.

정치쇄신의 첫 과제로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을 꼽았다. 공천 개혁은 정당 개혁의 첫 과제로 제시한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

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당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억압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은 기현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내보이려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쇄신안 중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선출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정치쇄신특위가 발표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권의 단일화에 맞설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앙당 권한 대폭 축소를 통한 원내 정당화나 중수부 폐지를 비롯한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특권폐지에 관한 내용 등이 쇄신안에 들어가지 않아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자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경매투자

- ▶ 배우면서 수익 내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교육비 등 회비 550만원
-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 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상업동[나이트클럽] 대228坪, 건3090㎡

강정가 72억원

최저가 25억원

3층나이트

25억

3층

화정동[예식장] 대194坪, 건4489㎡

강정가 41억원

최저가 17억

건4489㎡

41억

17억

독암동[목욕탕] 대570坪, 건1256㎡

강정가 129억원

최저가 5억3천

129억원

5억3천

소태동[독서실] 대561坪, 건1439㎡

강정가 128억원

최저가 6억9천

1439㎡

128억원

6억9천

월출동[공장] 건1089坪

강정가 14억4천

최저가 10억

1089坪

14억4천

10억

화순도[무인텔] 대190坪, 건267㎡

강정가 28억7천

최저가 18억7천

267㎡

28억7천

18억7천

월출동[근린시설] 대446坪, 건269㎡

강정가 6억3천

최저가 3억5천

269㎡

6억3천

3억5천

아파트/빌라 박미란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순애연이사 010-9611-2817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동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헬프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